

사고 현장 첫 방문 ‘눈물의 제사’…유족들 ‘통곡의 새해’

무안공항서 새해 맞는 유족들

떡국·과일 등 올리고 간소한 제사 “우리 아들·내 착한 동생” 오열만 울어도 울어도 또 눈물 쏟아져 희생자 179명 전원 신원 확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뜬 눈으로 지새며 2025년 새해를 맞아왔다. 1일 유족들이 모여있는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2층 대기실은 새해가 무색하게 적막감이 맴돌았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족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보냈을 새해 첫 날이라 유족들의 속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간 듯 했다.

이날 유족들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사를 올리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사고 후 4일만이었다.

그동안 사고가 난 활주로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막혀 있는 탓에 유족들은 한 번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지 못했다. 이에 유족 대표단이 새해 첫날을 맞아 간소한 추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유족들은 희생자 한 명당 최대 4명씩, 16개 버스에 나눠 타고 참사 현장을 방문해 단상에 떡국, 과일 등을 올리고 간소한 제사를 올렸다.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도 무안공항은 침묵한 분위기였다.

지난 날을 내내 마음 새 없는 눈물을 쏟았던 유족들은 공항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주시하고 있었다.

일부 유족은 의자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기도 정신을 차리면 다시 눈물이 터져나와 공항 밖에서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헬터(천막)에서는 간간이 “내 착한 동생이 왜” “우리 아들 어떡하나” 구슬픈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서로를 끌어안고 “울지 마” 토닥거리다가도 다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사고 첫 날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유족들은 국토부와 수사본부의 브리핑 시간이 되자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한 유족은 “어릴 때 친누나를 잃은 데 이어 이번까지 누나를 두 명 잃었다”며 “트라우마에 빠져도 상관 없다. 우리 누나 팔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손가락만이라도 만져보게 해 달라”며 오열했다.

또 다른 유족은 “가족 셋을 잃었는데, 누가 왜 무엇때문에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늦어지는지 설명도 안 해 준다”며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다. 설명조차 없으니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5명의 신원이 이날 모두 확인되면서 희생자 179명 전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문으로 147명, DNA 검사로 3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검사를 통해 모든 희생자의 시신 일부가 특정됐다는 것으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들에 대한 신원 확인과 복원 작업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6시 30분 기준 유족의 동의에 따라 시신 인도가 가능한 희생자는 43명이며, 지금까지 21명의 시신이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활주로 철조망 앞에도 추모편지·국화꽃 잇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일째 사고 현장 인근에는 희생자들을 잊지 못한 애절한 마음들이 잇따랐다. 1일 오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인 활주로 철조망 앞에는 가족과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 등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편지와 국화꽃, 솔잔과 음식들이 길게 나열돼 있었다.

철조망 인근에는 사고 당시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직도 여전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고여객기 잔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불에 타다 만 비행잡지, 과자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철조망 군데군데마다 솔과 음식들이 놓여 있고 편지가 붙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탑승객을 위해 힘썼을 기장과 승무원들을 위한 편지도 있었다.

편지에는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셨을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탑승객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곳가서서 편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고 앞에는 쫄쫄떡과 핫팩, 소주가 놓여있었다.

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 정비팀도 “Rest in peac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길 기도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글귀와 국화꽃 두송이를 현장에 남겼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애절한 손편지들…눈물이 마음에 고이네

무안공항 곳곳 추모 손편지

위로·응원 담긴 포스트잇 등 가득 유족 추정 편지도 다수 ‘눈시울’

무안국제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손 편지가 잇따라 붙어 조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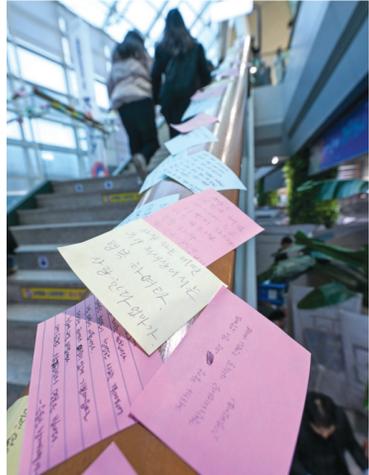
1일 무안국제공항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에는 남녀노소 추모객들이 포스트잇, 스크래치 페이퍼 등에 유가족과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은 손 편지로 가득 차 공항을 찾는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편지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못다한 삶 아쉬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힘내시고 다시 일어섰으면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됐으면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미안합니다. 부디 편안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등 위로와 응원이 담겼다.

작은 종이는 계단 난간부터 계단 외벽 등에 붙었고, 몇 편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기도 했다.

특히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다수 발견돼 공항 방문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부부로 추정되는 이들은 “안녕 엄마 벌써 25년이야 엄마 딸 아홉수다! 그곳에도 새해가 밝았지? 북마니마니 받아 엄마 뉘까지 잘 살게 가족들 걱정은 이제 그만하고 자유롭게 지내고있어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 알람부 너무너무 보고싶을꺼야 나중에 만나”라고 썼다. 이어 “어머니 새해가 밝았네요. 천국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친구분,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남아있는 가족분들은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챙길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언젠가 만나는 그때는 웃으면서 재밌게 오손도손 지낼



1일 무안국제공항 2층 유가족 심터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손편지들이 붙여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가족분들 잘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덧붙혔다.

한 편지에는 “사랑하는 우리 오빠. 너무 선해서, 정의로워서, 사랑스러워서, 멋져서, 필요로 해서, 오빠가 필요한 자리로 데려가 버렸나봐. 근데 우리는 어찌지. 그저 멀리 있을 뿐이랄걸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보고 싶어서 어찌지. 이모 꿈에 예쁜 모습으로 찾아와줘. 아파할까봐 걱정이 참 많아. 사랑해 오빠”라는 글이 적혔다.

공항 내 손 편지 부착을 기획한 이근호 손편지운동본부 대표는 “눈물이 마음에 고인다”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어 서울에서 급하게 왔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경찰, 희생자·유족 모욕 게시물 수사 착수

도, 중대본에 가짜 뉴스 대응 요청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엄정 대응하고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 3건의 아이디를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추적에 나선 아이디는 참사 당일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황제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 등이다.

이 게시물에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 일 듯”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커뮤니티 측에 협조를 구해 게시자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자 외에도 2명의 아이디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일 영장을 신청해 게시자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요구사항을 반영,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나 쇼츠 등에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공유·생산되면서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1대 1 유족 전담 공무원을 통해 허위 기사를 파악하는 한편, 유가족을 위한 상담 전문의사 확대 배치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유가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현장 방문을 원하는 유가족들 의견을 반영해 1일 무안국제공항과 사고 현장을 연결하는 순회버스도 운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의 임직원일동

진료내용

산부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